

韓國政治學 研究의 反省과 課題

宋 裕 炅*

The Reflection and Question on the Korean Politics Research

Yoo - Kyung Song

목 차

- | | |
|------------------------|------------------------|
| I. 序 論 | |
| II. 行態主義 政治學의 出現과 그 批判 | 1. 韓國政治學에 있어서 行態主義의 導入 |
| 1. 實證主義와 論理 實證主義 | 2. 韓國政治學의 方法論的 摸索 |
| 2. 行態主義 政治學의 出現 | 3. 社會批判的 政治分析 |
| 3. 行態主義 政治學의 批判 | IV. 結論：韓國政治學 研究의 課題 |
| III. 韓國政治學의 定立問題 | 參考文獻 |

I. 序 論

最近에 이르러 社會科學界에서는 方法論(methodology)에 대한 論議가 점차로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1960년대까지는 實證主義(positivism)가 지배적인 研究方法論이었지만, 이에 대한 反省이 구미학계에서 일기 시작하면서 韓國의 政治學者들도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여러 方法論들이 안고 있는 問題點들을 찾아내는데 관심을 쏟게 되었다.

實證主義가 자연현상을 기술하고 그 法則을 발견하며 自然을 통제하는 유효한 方法일지라도 人間世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위적 변화를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어서 이 方法論은 오히려 '현상유지의 사회적 보수주의'로 전락해 버린다는 見解가 새로운 方法論의 제시를 촉구하였다¹⁾. 오늘날 實證科學으로 대표되는 經驗科學(empirical sciences)의 功過에 대해서는 많은 批判이 일어나고 있다. 實證科學은 그것을 잉태시키고 發展

*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강사

1)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현대사회과학방법론』(서울: 민음사, 1977), p. 7

케 한 英國과 美國의 사회적 조건 및 정치적 환경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産業社會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理想的인 질서관으로 삼아왔던 近代 특히 西歐社會의 관점에서 본다면 實證科學은 그 나름대로 주어진 실천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셈이다. 그러나 고도로 분화된 後期 産業資本主義의 체제가 당면한 問題를 해결하는 열쇠로서는 限界를 노정하고 있으며, 특히 非西歐社會의 問題意識에 입각하여 본다면 批判받아 마땅한 취약점을 많이 안고 있다²⁾. 이러한 한계와 취약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經驗科學을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科學 자체를 거부하는 反科學主義 運動까지도 일고 있는 것이다.

解放이후 부터 시작된 韓國의 政治學이 독립된 국가의 政治學으로서 자기 위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부터 美·蘇간의 냉전과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그 方向이 틀지워졌고, 그에 따라 그 이후의 발전과정도 일방적으로 美國의 政治學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일관된 결과³⁾ “韓國 政治學은 깊이 美國政治學에 의존”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1960년대 이후부터는 美國政治學의 주류를 이루던 行態主義(behavioralism)의 政治學이 역시 韓國政治學의 주류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한 體系理論(system theory)과 構造·機能主義理論(structural functionalism)이 특히 政治過程論과 比較政治分野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行態主義는 학문한다는 것이 어떤 目的을 가진다는 것을 밝혀주지 못한 채 현상의 지속만을 견지하고 社會發展의 方向을 제시하거나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方法論은 인간의 外面만을 관찰하고 內面的 深層構造(deep structure)⁵⁾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효율성의 限界를 드러내고 있으며⁶⁾ 또한 低發展社會로서의 韓國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低開發社會의 問題意識’으로부터 출발된 ‘자아준거적 정치학’⁷⁾으로서의 韓國政治學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行態主義는 批判받아 당연한 것이다. 올바른 韓國政治學의 정립은 학문의 변방화와 시너화를 극복한 ‘學問的 自主性’과 韓國社會의 ‘全體社會的인 政治分析’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은 問題意識에 입각하여 韓國政治學 研究에 있어서 주류적 입장을 차지해 온 行態主義의 研究方法論에 대한 反省을 통해 韓國政治學 研究의 올바른 方向을 모색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안청시, 「한국정치학의 발전과제와 방향모색」,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론』(서울:법문사, 1986), p.464.

3) 이태일, 「한국정치연구의 반성과 과제」, 『오늘의 책』(서울:한길사, 1984), p. 420.

4) 김계수, 「한국정치학의 현황과 문제점」, 『제1회 한국정치학회·재북미한국인 정치학자회 합동학술대회논문집』(1975), p. 54

5) 행태주의는 관찰가능한 경험적 사실의 바탕위에서 구조의 개념이나 구조의 내용을 이루는 부분들을 강조하지만, 대륙계의 구조주의(structuralism)는 경험적 세계의 외면(appearance)을 만들어 내는 심층적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6)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앞의 책, p. 6.

7) 윤근식, 『정치학』(서울:대왕사, 1975), 서문.

8) 문승익, 「한국정치학의 정립문제」, 『한국정치학회보』, 제13집(1979), p. 6.

II. 行態主義 政治學의 出現과 그 批判

1. 實證主義와 論理 實證主義

1) 實證主義

行態主義의 인식론적 근거는 원래 實證主義와 궁극적으로는 英國의 經驗主義(empiricism)에 있다⁹⁾. 社會學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社會學의 창시자인 콩트(Auguste Comte)는 프랑 스킽혁명과 산업혁명에 수반된 끊임없는 폭동과 반란, 그리고 규범적 질서의 붕괴로 극히 혼미했던 당시의 社會가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고 進步的 發展을 이룩하는 方案을 찾는 데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혁명 후 프랑스사회가 進步와 保守의 상반된 이념과 사상으로 대립하자 이를 동시에 이룩하려는 學說을 정립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드 메뜨르(de Maistre)와 드 보나르(de Bonald) 등의 傳統主義로부터 秩序의 이념과 反個人主義的 思想을 수용하였고, 콩도르세(Condorcet)와 튀르고(Turgot)의 진보적 역사관으로부터 進步의 이념을 수용한 후 이를 동시에 이룩하는 방안을 實證哲學¹⁰⁾에서 찾고자 하였다.

콩트는 그의 유명한 '진보의 3단계 법칙'에서 개인의 정신이나 인류역사는 신학적·허구적인 단계와 형이상학적·추상적인 단계를 거쳐 결국 실증적·과학적인 단계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첫째 단계는 神學的 段階(theological stage)로 인간오성의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출발점으로서 제1원인 또는 궁극원인에 대한 절대적인 智識에 대한 탐구속에 존재한다. 현상들은 초자연적인 원인들의 작용에 비추어 설명되는데, 이 단계는 모든 현상을 단일한 神에게서 나온 경과로 이해할 때 가장 발전된 정점에 이르게 된다¹¹⁾. 둘째 단계인 形而上學的 段階(metaphysical stage)는 순전히 실증적 상태로의 移行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 단계에서는 超自然的인 원인들이 모든 현상에 관계하는 추상적 힘과 근본적 실체로써 대치된다. 형이상학적 사고의 최고 발달단계는 모든 현상을 自然이라는 단일한 실체에 결부시키는 태도를 포함한다. 그러나 지식의 한 分野는 오로지 셋째 단계인 實證的 段階(positive stage)에 도달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科學的 地位를 획득한다¹²⁾. 實證的 段階에서 비로소 人間은 궁극적 본질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는 헛된 노력을 단념하고, 관찰·실험·비교를 통한 科學的 方法으로 경험적 사실들간의 법칙적 관계만을 탐구하게 된다. 즉, 오직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실들간의 유사성과 계기성을 發見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다¹³⁾.

9) 김광용, 『사회과학연구방법론』(서울: 박영사, 1981), p. 32.

10) 실증철학은 천문학·물리학·화학·생물학 그리고 사회학으로 구성되며, 실증철학의 방법적 원칙은 실증주의라고 할 수 있다. 전경갑, 『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서울: 한길사, 1993), p. 210.

11) 신학적 단계는 다시 만유정신론(animism), 다신론(polytheism), 일신론(monotheism)의 3단계로 구분된다. 만유정신론은 모든 것이 그 자신의 의지와 영혼을 지닌다고 보는 일종의 물신론(fetishism)이고, 다신론은 바다·땅·바람 그리고 불의 신과 같은 여러 신의 의지가 자연의 배후에 있다고 보며, 일신론은 어떤 하나의 신의 의지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보고 있다.

12) Ted Benton, 안상현 역, 『사회과학의 철학적 기초』(서울: 풀빛, 1984), p. 53.

13) Ted Benton,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the Three Sociologie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7), p. 32.

콩트의 實證主義가 표방하는 원리는 '科學的 經驗主義'로, 科學만이 타당한 지식을 얻게 하며 그리고 지식의 가능한 대상과 바탕은 사실뿐이라는 것이다¹⁴⁾. 實證主義는 事實과 科學의 方法에 의거하지 않는 지식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무의미한 것으로 보며, 哲學者나 科學者의 사고를 '實證적으로 주어진 것'에 국한시키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¹⁵⁾. 또한 實證主義는 '규칙없는 사색'(undisciplined speculation)보다는 검증하고 체계화된 經驗을 강조하면서, 近代 自然科學의 方法과 成果에 의거하는 물리적·정신적 현상세계의 통일적인 설명을 하려고 한다. 따라서 實證主義는 事實 및 科學的 法則을 초월하는 어떤 것을 부정하며 形而上學과 일반적으로 科學的 方法으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탐구절차도 반대한다. 결국 콩트의 實證主義는 經驗主義的 認識論에 근거한 것으로, 엄밀한 學問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形而上學的인 사고를 배격하고 오직 經驗的으로 觀察할 수 있는 현상과 經驗의 현상들간의 法則的 關係를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콩트를 선두로 한 이러한 實證主義는 近代 自然科學의 비약적 진전에 따라 19세기 후반의 여러 分野에 광범한 영향을 주었다. 예컨대 영국의 밀(John S. Mill)의 귀납법과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진화론, 프랑스의 뒤르켐(Emile Durkheim)의 통계적 분석 등과 같은 일련의 方法論상의 쇄신을 거쳐 現代 社會科學의 실증주의적 전통의 기본골격을 形成하였을 뿐만 아니라¹⁶⁾ 行態主義의 認識論의 土臺가 되었다.

2) 論理 實證主義(logical positivism)

19세기의 실증주의적 전통을 철학적 시각에서 보다 분석적이고 풍부한 내용으로 체계화한 것이 論理 實證主義(logical positivism)이라고 할 수 있다. 論理 實證主義는 바로 近代科學의 철학적 바탕을 새로이 조명해 보려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모든 形而上學的 지식을 배격하고 오직 事實과 經驗으로 檢證되는 지식만이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고 전제하는 論理 實證主義는 전후 自然科學뿐만 아니라 社會科學 분야에 있어서도 科學의 本質과 關連되는 표준적 견해(standard view)로 자리를 굳혔다¹⁷⁾. 論理 實證主義는 1926년~1936년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사이의 기간에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科學哲學(philosophy of science)에 관한 研究를 목적으로 정기적 모임을 가졌던 研究團體인 '비엔나학파'(Vienna Circle)의 철학적 입장을 지칭하며, 19세기의 實證主義와 구별하여 20세기의 實證主義라고 한다¹⁸⁾. 비엔나학파의 주요 구성원은 쉘릭(Moritz Schlick), 카르납(Rudolf Carnap), 노이라쓰(Otto Neurath), 프랭크(Philipp Frank), 한(Hans Hahn), 바이스만(Friedrich Waismann), 카우프만(Felix Kaufmann) 등으로, 이들은 1929년에 발간한 『비엔나학파의 과학적 세계관』(The Scientific

14) N. Abbagnano, *Positivism: in Encyclopedia of Philosophy*, 1972, Vol.6, p.414.

15) 심현섭, 「비판적 실증주의」,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현대사회과학방법론」(서울: 민음사, 1977), p.153.

16) Peter Halfpenny, *Positivism and Sociology: Explaining Social Lif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82), pp.13-26.

17) 오명호, 「현대정치학방법론」(서울: 박영사, 1995), p.33.

18) 전경갑, 앞의 책, p.226.

World View : The Vienna Circle)에서 論理 實證主義의 기본입장을 밝혔다.

論理 實證主義者들의 기본신조는 첫째, '경험적 검증가능성'(empirical verifiability)의 원칙이다. 科學에서 다루어지는 命題는 경험적 근거에 의해 檢證될 때에만 그 진리가 확정된다는 것이다¹⁹⁾. 경험적 사실을 축적하면 경험적 사실간의 관계를 論理的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여기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普遍的인 法則(universal law)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prediction)이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科學的 研究方法의 원형(prototype)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논리적 자명성'(logical tautology)이다. 즉, 학문적으로 의미있는 명제가 되려면 논리적으로 명제의 타당성이 명백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적 영역을 초월하는 宗教的 命題, 倫理的 命題, 價值論的 命題, 深美的 命題는 무의미한 명제로 학문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論理 實證主義는 전통적으로 哲學의 중심을 차지해 왔던 形而上學에 대한 철저한 批判을 하나의 중요한 課題로 삼았던 것이다.

論理 實證主義가 產業社會가 요구하는 특히 독점자본의 가치증식운동이 요구하는 科學과 技術의 발전을 위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철저한 價值中立性(value-free)을 표방한 論理 實證主義가 사실과 가치, 존재와 당위, 이론과 실천간에 메울 수 없는 심연을 과놓음으로써 科學은 그 본연의 목적으로부터 이탈하여 人間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를 억압하고 人間위에 군림하는 文明의 逆說을 초래하였다²⁰⁾.

2. 行態主義 政治學의 出現

정치현상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법칙적인 설명을 추구하는 現代政治學은 20세기 중반에 와서 '政治學의 科學的 研究'(scientific study of politics)²¹⁾를 부르짖게 되었다. 行態主義는 政治學을 自然科學에 준하는 엄밀한 科學으로 발전시키자는 운동으로서 단순한 서술과 관찰주의를 피하고 體系的이고 經驗的인 이론수립을 강조하였다. 行態主義는 선형적 추론이나 추상적 일반화 및 법과 제도중심의 研究를 거부하고 個人과 集團의 행동과 상호관계를 집중적으로 研究할 것을 제창하였다. 또 이 운동은 學問活動에서 事實(fact)과 價值(value)를 일단 분리시켜 고찰하고 성급한 행동이나 응용에 앞서 이론과 지식을 우선 축적해 갈 것을 제의했다. 동시에 行態主義는 計量的 方法을 광범위하게 원용하여 資料의 수집과 분석에 正確性和 客觀性을 높일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行態主義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하나의 주도적인 研究方法論이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이전에 自然科學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研究道具와 方法論상의 技法이 널리 개발되었으며, 여론조사나 서베이方法, 수학적 통계 및 컴퓨터기술 등이 政治學者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 이외에도 1930년대 이후의 論理 實證主義와 베버

19) Milton K. Munitz, *Contemporary Analytic Philosophy*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81), pp. 240 - 241.

20) 전경갑, 앞의 책, p.235.

21) Alan C. Isaak, *Scope and Methods of Political Science* (Homewood, Illinois : The Dorsey Press, 1981), p. 42.

(Max Weber)의 解釋의 方法 등의 方法論상의 새로운 움직임, 2차대전을 계기로 유럽을 떠나 美國으로 이주한 망명학자들의 역할²²⁾, 戰後 第3世界의 등장과 西歐中心 政治學의 한계성인식, 인접 社會科學분야인 人類學·心理學·社會學의 놀라운 발달 등이 복합적으로 作用하는 가운데 行態主義 政治學을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²³⁾.

行態主義가 내세우는 命題는 규칙성, 자료의 선정 모집 및 정리에서의 엄격한 기술, 측정과 계량화를 통한 정밀성, 사실과 가치의 분리, 이론의 체계화, 순수과학의 강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스튼(David Easton)은 “행태주의의 운용적 의미”(The Current Meaning of Behavioralism)라는 논문에서 行態主義 政治學의 기본가정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²⁴⁾.

- (1) 政治行態에는 발견할 수 있는 統一性(uniformities)이 있다. 이것은 설명적이고 예측적인 가치를 지닌 이론이나 일반화로 표현할 수 있다.(규칙성 : regularities)
- (2) 그러한 일반화(generalization)의 타당성(validity)은 원칙적으로 해당되는 행동에 적용해서 檢證되어야 한다.(검증 : verification)
- (3) 資料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방법은 자연적으로 얻어질 수 없다. 그 자신이 問題이며 자의적으로 檢證하고 세련화시키며 확인하여 그것으로 行動의 관찰·기록·분석을 위한 엄밀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기교 : techniques)
- (4) 資料의 기록과 조사결과의 발표를 정확히 하기 위해 측정과 수량화가 필요하다. 정확성은 정확성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에 비추어 관련성이 있으며 의미가 있다고 볼 때에만 필요하다.(수량화 : quantification)
- (5) 윤리적 평가와 경험적인 설명은 두 종류의 상이한 命題를 의미하며 그 명확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양자의 구별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政治行態의 研究者는 그 양자를 혼동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그 어느 쪽의 命題를 각각 별도로 취급할 수 있다.(가치 : value)
- (6) 조사는 체계적이어야 한다. 즉 이론과 조사가 수미일관된 질서있는 지식으로 서로 밀접히 관련된 3개의 부분으로 보여야 한다. 理論에 의해서 유도되지 않는 조사는 평범하고 쓸데없는 것이 될 수 있고 資料에 의해 지탱되지 못하는 理論은 不毛性을 면치 못한다.(체계화 : systematization)
- (7) 지식의 응용은 이론적 이해의 일부분인 동시에 科學의인 운영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政治行動의 이해와 설명은 눈앞의 실제적인 社會問題의 해결에 정치지식을 이용하려는 노력에 논리적으로 선행하며 또 그 기초가 된다.(순수과학 : pure science)
- (8) 社會科學은 인간의 상황전체를 취급하는 만큼 政治調査가 타학문의 조사결과를 무시할 때, 그 자신의 조사결과의 유효성을 약화시키며 일반성을 상실케 하는 위험을 지닌다. 社會科學의 상호관련성을 인정한다면 政治學은 과거 수십 세기전의 지위로 다시 환원될 수 없으며 그것을 社會科學의 중심학문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이다.(종합 : integration)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行態主義者들의 주장은 社會科學도 自然科學의 方法과 目的에 유사한 方法論을 도출할 수 있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科學’으로서의 社會科學의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정치·사회현상의 規則性을 발견하고 이의 一般化(generalization)를 시도하

22) 1936년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의 시카고대학으로 옮긴 비엔나학파의 카르납(Rudolf Carnap)은 모리스(Charles Morris) 등 미국의 철학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논리실증주의는 미국의 실용주의와 교감의 폭을 넓혀 나갔다.

23) 오명호, 앞의 책, p. 26.

24) D. Easton, "The Current Meaning of Behavioralism," in James C. Charlesworth(ed.), *Contemporary Political Analysis* (New York : The Free Press, 1967, pp. 16 - 17.

고자 하였다²⁵⁾. 行態主義者들은 經驗的 지식에 초점을 맞추어 재래의 政治學에 새로운 原則과 方法을 적용하며 經驗科學的 見解에 따라 政治學을 새로이 시작하였다. 첫째, 行態主義者들은 직관적이고 신비한 통찰력이나 철학적 비전(vision)대신에 공통적이며 누구나 반복할 수 있는 感覺的 觀察(sense observation)을 판단의 근거로 수락하였다. 이들은 트루먼(David Truman)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政治의 현상을 관찰된 그리고 관찰할 수 있는 인간행위라고 생각하였다²⁶⁾. 따라서 感覺的 觀察이 불가능한 가치판단이나 초감각적 經驗은 科學의 영역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行態主義者들은 정치적 지식이 질적이고 기술적이고 개괄적인 수준에서 計量的이고 증명가능하며 精密性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科學적 研究가 가설에 대한 정확한 진술과 명증성에 준한 엄격한 資料處理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計量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⁷⁾.

行態主義의 발전시기는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제1기는 이른바 實證的 行態主義(positive behavioralism)로서 S.Rice와 H.Gosnell을 대표적인 학자로 들 수 있다. 이들은 經驗的이고 計量的인 方法을 시도하였으나 분석기법이 세련되지 못하였으며 다만 간결한 묘사가 특징이었다²⁸⁾. 둘째, 제2기는 2차대전 이후 이른바 理論的 行態主義(theoretical behavioralism)가 등장하였다. 태동기인 제1기에 비하여 제2기는 혁명기라고 부를 수 있다. 알몬드(G.A. Almond), 달(Robert A. Dahl), 이스튼(David Easton), 도이취(Karl W. Deutsch), 라스웰(Harold Lasswell) 등은 理論의 정립을 중요시하여 假說의 檢證과 經驗的 理論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制度學派의 이론적 빈곤을 극복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이론일변도의 성향을 띠게 되었다. 따라서 지나친 理論에의 집착이 학문간의 교류가 단절되는 국지주의(parochialism) 현상을 초래하였다. 셋째, 제3기는 이론면에서 科學性과 哲學性을 더욱 높이고 方法面에서 세련화시켜 국지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行態主義의 혁명이 1960년대 후반에 일어났는데 이를 後期 行態主義(post behavioralism)라고 부른다. 後期 行態主義는 行態主義가 강조한 科學的 方法을 부정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現實問題의 해결을 위한 적실성(Relevance)과 행동(Action)의 기여를 보완하자는 주장이다²⁹⁾. 1960년대 美國社會가 민권운동, 도시폭동, 일련의 요인암살, 환경오염, 학생운동, 반월남전운동 등으로 일대 危機에 직면하면서 부터 政治學이 이러한 주요 問題에 대하여 아무런 공헌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을 인정하였다³⁰⁾. 이스튼(D.Easton)은 그의 논문 "정치학의 새로운 혁명"(The New Revolution in Political Science)에서 政治學이 위기에 대처하는데 실패한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政治學研究의 결과가

25) 김성주, 「정치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사회과학의 동향과 전망』(서울: 한울, 1994), p. 35.

26) David Truman, "The Implications of Political Behavior Research," *Item*(December, 1951), pp. 37 - 39.

27) 김홍우, 「정치행태론 비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현대사회과학방법론』(서울: 민음사, 1977), p. 219.

28) 김광웅, 앞의 책, p. 27.

29) 이범준, 신승권, 『정치학』(서울: 박영사, 1986), p. 23.

30) 한배호, 『정치학방법론』(서울: 법문사, 1983), p. 69.

현실의 問題解決에 아무런 方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면서 이러한 실패가 政治學研究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고 그 결과가 政治學의 새로운 혁명인 後期 行態主義의 움직임이라고 지적하였다³¹⁾. 결국 後期 行態主義는 行態主義가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약점을 극복하고³²⁾ 問題解決의 현실적인 學問이 되겠다는 새로운 학풍의 대두로 성립된 것이었다.

行態主義가 미국의 지배적인 패러다임(paradigm)으로 풍미하던 시기는 國內적으로 뉴딜정책에 성공하고 國際적으로 전쟁에 승리한 美國이 유럽의 전후복구는 물론 동서냉전에서 자유진영의 기수역할을 떠맡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세계 도처에서 美國이 벌이고 있던 이와 같은 눈부신 활약은 美國式 民主主義가 승리할 것이라는 데 대한 자신감과 낙관적 발전관을 팽배시켰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은 體制와 權力의 正當性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보다는 民主政治의 기술적 問題와 기능적 요건에 학문적 관심을 집중하는데 만족하도록 만들었다. 行態主義는 이와 같은 政治의 무드와 환경의 산물인 동시에 바로 그러한 환경에 부응하여 번창하고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낙관적 정치기류는 그 生命이 오래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것을 떠받치고 있던 政治學의 內容과 方法도 그 후 새로운 轉換과 反省의 시험대에 오를 수 밖에 없었다.

3. 行態主義 政治學의 批判

첫째, 傳統主義者³³⁾들의 批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傳統主義者들은 政治學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科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政治學의 分析單位(units of analysis)가 自然科學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人間은 과거·현재·미래의 기대나 經驗에 바탕을 두면서 자신의 行態를 계획하고 개편할 수 있는 능력과 자의성을 지닌 특유한 存在이다. 그러한 人間을 分析單位로 해서는 예측가능한 법칙을 세울 수 없으며, 또한 政治行態가 역사적이며 재반복적인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서 어떤 規則性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³⁴⁾. 둘째, 傳統主義者들은 또 하나의 批判으로 인간행동이 너무 복잡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科學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科學의 方法을 적용하기에는 정치현상이 너무나 우발적이고 다룰 수 없는 양의 변수가 개재하고 있으므로 수량화나 정밀분석을 政治學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 政治學의 개념이나 본질은 쉽게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 뿐이다. 傳統主義者들은 社會科學과 自然科學이 각기 이질적인 대상을 갖고 있으며 社會科學이 自然科學의 方法을 模倣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社會科學者는 自然科學者와 달라서 대상을 무감정적(dispassionate)으로 다

31) David Easton, "The New Revolution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ecember, 1969), pp. 1051 - 1061.

32) 후기 행태주의는 정치학자가 정부와 정치에 관한 가치판단을 해야 하며, 정치학이라는 직업은 정책문제에 공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럼으로 후기 행태주의는 정치학이 정책과학(policy science)으로 되는 도상에 올려 놓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Alan C. Isaak, *op. cit.*, pp. 45 - 47.

33) 전통주의자들은 가장 중요한 3가지 전통적 접근방법인 역사적(historical), 법적(legalistic), 제도적(institutional)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Alan C. Isaak, *op. cit.*, p. 34.

34) 한배호, 앞의 책, p. 65.

를 수 없으므로 科學的 方法에서 요청하는 客觀性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社會科學者의 경우 자신들의 가치나 감정을 事實에서 완전 분리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³⁵⁾.

둘째, 認識論的 批判이다. 行態科學의 이념과 과학적 설명은 하나의 認識論的 立場으로 집약된다. 그것은 과학적 진리를 主體와 客體의 일치에 구하는 상응이론(correspondence theory)이라고 할 수 있다. 行態主義者들은 主體와 客體를 분리시키고 이러한 분리를 당연한 '아 프리오리'(a priori)로 받아들인다. 認識은 인식의 대상으로부터 지각은 지각의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별개로 존재한다. 客體는 主體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存在하는 즉자적 존재이다. 行態主義者들은 客體가 主體에 의하여 인식되며 主體는 그의 인식행위속에서 분리된 客體에 도달한다고 믿는다. 여기서 證明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主體와 客體를 다시 맞추어 보는 행위로 이해된다. 證明의 과정에서 主體는 客體와 맞추어지고 科學的 眞理는 이러한 맞춤(matching)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응이론은 認識의 구성적 행위를 도외시하는데 問題가 있다. 훗설(Edmund Husserl)에 의하면 모든 객관적 실체는 의식적 형성(conscious formation) 즉, 구성(constitution)의 산물이며 따라서 구성에 대한 이해없이 객관적 존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훗설은 『Ideas』³⁶⁾에서 구성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그는 主體와 분리된 客體는 불가사의한 수수께끼라 할 수 있고, 대상에 대한 經驗은 의식에 앞서 존재하는 대상을 의식이 그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方式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意識에 주어진 대상은 현상(appearance)으로서 意識의 흐름을 구성한다. 현상은 대상이 아니며 대상을 포함하는 것도 아니다. 현상은 意識의 내용이며 대상의 의미이다. 현상은 意識의 흐름을 구성함으로써 대상의 의미를 구성하고,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대상을 대상으로 經驗한다. 바꾸어 말하면 대상을 經驗하는 상황이란 마치 상자안에 물건을 넣듯이 意識안에 대상을 넣는 方式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상의 經驗은 意識이 대상의 의미를 意識 속에서 구성하면서 대상으로 의미하는 과정으로 전개한다. 모든 대상 모든 현실이란 의미로서 구성된 대상이며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主體와 客體는 意識의 구성 행위속에서 분리될 수 없는 단일체로 존재한다³⁷⁾.

行態主義는 主體와 客體의 분리를 전제로 하며 모든 확실성의 근거를 客觀世界에서 구한다. 어떤 의미에서 行態主義는 진정한 의미의 科學이라기 보다는 客觀世界에 대한 맹목적 믿음에 입각한 일종의 意見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行態主義者들이 이미 주어진 科學을 科學으로 수락할 뿐 이러한 科學이 전제로 하는 科學의 意味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타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물음을 제기하지 않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經驗적인 것', '行態적인 것' 또는 '實證적인 것' 이 어째서 '科學적인 것' 의 한 속성으로 수락되는지 알지 못한다. 科學이 무엇인지 모른 채 科學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35) 위의 책, p. 65.

36) Edmund Husserl, *Ideas : General Introduction to Pure Phenomenology*, trans. W.R. Boyce Gibson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52), p. 390.

37) 김홍우, 앞의 글, p. 236.

Ⅲ. 韓國政治學의 定立問題

1. 韓國政治學에 있어서 行態主義의 導入

冷戰의 틀 속에서 美國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았던 政治現實은 韓國의 政治學界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때문에 韓國의 政治學은 한국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外國의 이론과 업적을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韓國政治學은 출발 당시부터 政治學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자각이 부족했고 그 후에도 자주적인 政治社會觀과는 유리된 발전의 경로를 걸어왔다³⁸⁾.

美國政治學의 이론적인 수용에 적극적인 관심과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계기는 韓國戰爭 이후 미국무성 초청에 의한 상당수 教授들의 미국연수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경향은 1960년에 그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1960년대에 美國의 원조계획이나 韓國戰爭 중에 美國으로 건너 갔던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行態主義의 학풍이 도입되었다³⁹⁾. 美國의 行態主義 政治學을 韓國에 처음 소개했던 윤천주의 논문 “行態科學的 政治學의 役割”과 행태주의적 연구 방법에 의해 韓國政治를 분석하였던 『韓國政治體系序說』, 『韓國政治體系』 등이 모두 1960~63년 사이에 발표되었는데 韓國政治學의 行態主義의 지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⁴⁰⁾.

1960년대부터 行態主義 政治學은 韓國政治學의 주류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쉽사리 주류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說明될 수 있다⁴¹⁾. 첫째, 1960년대 이후부터 韓國政治學界의 학문적인 세대교체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1960년 이전만 해도 日本에서 대학을 다녔거나 아니면 국내의 대학에서 傳統的인 政治學을 이수했던 이들의 研究는 결국 넓은 의미에서 啓蒙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韓國政治社會의 현실을 政治學의 으로 분석하거나 또는 韓國의 政治的인 問題들의 극복을 위한 어떤 이론적인 方案을 제시한다거나 그 밖에 韓國社會가 지향해야 할 이데올로기적인 가치를 研究하는 것 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선 政治가 무엇이며 國家를 어떻게 설명하고 민주주의나 의회주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 자체가 학문적인 성격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 당시에 출간된 저서의 대다수가 본격적인 研究圖書이거나 아니면 韓國政治의 問題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著書는 거의 드문 형편에서도 알 수 있다. 둘째, 行態主義 政治學이 韓國의 政治學研究의 주류가 된 이유로서는 時代的인 또는 당시의 社會的인 性格때문이었다. 政治學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研究하고 價値中立的인 接近을 전제로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은 이데올로기적인 것과 무관할 수 없게 된다. 특정사회나 시대에서 지향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배치되거

38) 김영국,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학의 발전」, 『한국정치학회보』, 제11집(1977), pp. 39 - 49.

39) 안청시, 앞의 글, p. 481.

40)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였던 윤천주는 1957년 하버드대학에 초빙교수로 가 있으면서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행태주의를 공부하고 귀국한 이후 선거와 정치관련 여론조사 부문에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행태주의 조사방법으로 이 부문에서 선구적 업적을 남겼다. 한배호교수도 일찍부터 『이론정치학』(1995), 『비교정치론』(1971), 『정치학방법론』(1979), 『한국의 정치』(1984) 등의 저서를 통해 행태주의와 체계이론을 정력적으로 국내에 소개해 왔다.

41) 진덕규, 「한국의 정치학을 위하여」, 『한국사회연구 1』(서울 : 한길사, 1983), 참조.

나 상반되는 論理라면 그것은 學問的인 研究에서도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現代 韓國 社會의 政治學은 韓國政治가 가지고 있는 性格때문에 그만큼 제약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政治 社會의 이데올로기적 제약이라든가 權力構造의 경직성이 가지고 있는 권위적인 성격, 그리고 共產主義者들의 위협 등은 政治學의 성격을 주어진 제도와 가치의 설명에 국한하게 했으며 나아가서 權力의 전개과정에서는 동질적인 지향으로 스스로의 궤도를 정립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 결과 이데올로기問題를 비교적 경시하면서 선택의 어려움보다는 客觀的인 사실의 제시라는 性格을 강조하고 있었던 行態主義 政治學이 쉽사리 수용될 수 있었고 政治學의 주류로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러한 行態主義의 도입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까지 韓國의 政治學은 곧 行態主義 理論을 기반으로 하여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의 주제로서 ‘近代化論’와 ‘政治文化論’ 그리고 ‘政治發展論’이라는 性格으로 전개되었다⁴²⁾. 사회적 여건에 대한 적절한 이해없이 무분별하게 수용한 美國의 行態主義 政治學은 韓國의 現實政治를 美國의 政治學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여, 결과적으로 韓國政治와 韓國政治學사이에 별다른 관련을 찾아볼 수 없게 함으로써 韓國政治學者들의 韓國的인 問題意識을 매몰시키거나 회색시켰다. 그리하여 韓國政治의 現實에서 상아탑의 아카데미즘에 벗어나 안전한 입장에서 韓國의 現實을 방관하게 되었다⁴³⁾. 다시 말하면 行態主義 政治學은 격동의 韓國政治社會에서 政治學者들로 하여금 격동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 구실을 했다.

이러한 사실은 마침내 韓國의 政治學이라는 특징있는 學問의 체계를 이룩할 수 없게 하였고 오직 西歐의 최신이론을 수용하고 그것을 편의에 의해서 적절히 변용시켜서 적용하는 과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⁴⁴⁾.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부터 韓國政治學界는 이러한 韓國政治學界가 놓여진 위치에 대한 反省과 批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美國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政治를 소재로 해서…… 韓國에 관한 非西歐的인 政治模型의 설정이 더욱 더 요청된다”⁴⁵⁾는 입장에서 과거의 傳統을 재검토하고 學問과 社會를 보다 가깝게 연결시키려는 노력과 운동이 그 전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低發展된 社會으로서의 韓國社會를 올바르게 分析할 수 있으려면 “歷史적으로 틀지워져 있는 具體的인 韓國社會의 全體社會的인 政治分析을 통해서만 韓國政治의 객觀적 이해가 가능”⁴⁶⁾해져야 한다.

결국, 韓國의 政治學이 자체적인 問題意識에서 출발하는 면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며 앞으로 韓國의 社會現實에 필요하고 또한 그와 직접 관련되는 研究를 해야 할 當爲性이 제기되는 것이다.

42) 위의 글, p. 73.

43) 구범모, 「비교정치학 20년의 반성」, 『한국정치학회보』, 제2집(1967), pp. 8-9.

44) 진덕규, 앞의 글, p. 44.

45) 정인홍, 「한국정치학의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제5집(1971), p. 9.

46) 윤근식, 「사회없는 정치학과 한국정치학」,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사회과학론』(서울: 대왕사, 1983), p. 98.

2. 韓國政治學의 方法論的 摸索

方法論의 수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실은 方法論의 이론체계에 대한 정확한 認識이다. 왜 그러한 方法論이 그 社會에서 형성되었으며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구조·기능주의적인 方法은 美國社會의 보수주의적인 社會構造를 반영하고 있으며, 집단이론은 美國社會의 자발적 결사체를 전제로 한 論理임이 認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認識은 곧 어떤 의미에서는 方法論 자체가 그 社會의 價值的 性格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둘째의 고려는 그러한 方法論의 전이나 수용에 따르는 적실성의 問題⁴⁷⁾이다. 하나의 方法論이 형성되어 그것이 논리화되는 과정에서 理論과 現實사이에 연관을 맺게 된다. 行態主義 理論에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美國의 政治社會가 깔려있다. 따라서 行態主義 理論을 韓國 政治社會에 적용시키려고 할 때, 여기에는 먼저 美國의 政治社會와 韓國의 政治社會 사이의 유사성과 특이성을 밝히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美國의 政治社會가 韓國의 政治社會와 유사성이 있다면 行態主義 政治理論도 적용의 적실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러한 적실성이 약하거나 또는 이질성 자체가 유사성보다도 더 크다면 그러한 方法論의 적용은 그만큼 적실성을 결여하게 될 것이다⁴⁸⁾. 외국의 先進 理論들이나 接近方法을 수용하는 것은 韓國의 政治學을 위하여 더 할 수 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수용의 단계가 변용의 과정을 거쳐서 政治的 상황에 대한 적실성을 고려하면서 韓國의 政治를 정확하게 分析할 수 있는 論理의 설정이 어렵다. 또한 외국의 발전된 方法論을 수용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方法만이 주류를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政治學의 가장 발전된 성격인 것처럼 認識되는 것도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社會科學을 土着化한다는 것은 한 社會의 社會科學에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처럼⁴⁹⁾ 韓國政治學의 定立을 위해서는 政治學의 '學問的 自主性'을 중요시해야 한다. 學問的 自主性에는 대외적 측면과 대내적 측면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학문적 자주성은 學問的 獨自性을 의미하며 대내적으로는 學問的 自律性을 의미한다. 따라서 學問的 自主性을 달성하는 데는 극복되어야 할 2가지 난관이 있게 된다. 그 하나는 學問的 對外적 존재 곧 '학문의 변방화'를 극복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의 시녀화'를 극복하는 일이다. 학문의 변방화를 극복함으로써만 學問的 獨自性이 달성될 수 있고, 학문의 시녀화를 극복함으로써만 학문의 자율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학문

47) 실제로 미국과 같이 발전된 사회에 있어서는 이미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보편화되어 있고 자본주의 경제가 순조롭게 발전되어 있어, 정치권력을 통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민층이 광범위하게 확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화에 따른 다양한 집단과 자기의 이해관계에 눈을 뜬 각종 인종적 종교적 집단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경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거기다가 경제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도의 소비문화가 구가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책결정과정의 유지, 정치문화로서의 시민문화의 지속, 그리고 다원적 사회질서의 확대가 현실적으로 의미있는 가치기준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기준에 따른 정치분석이 적실성을 지닐 수도 있다.

48) 진덕규, 앞의 글, p. 81.

49) 황성모, 「사회과학의 토착화에 대하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현대사회과학방법론』(서울: 민음사, 1977), p. 246.

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달성할 때에만 비로소 ‘學問的 自主性’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다⁵⁰⁾.

3. 社會批判的 政治分析

韓國政治學의 定立問題에 있어 基本問題는 무엇보다도 國家(政治)와 社會(經濟)의 이론적 분리의 극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⁵¹⁾. 行態主義의 유파인 體系理論을 韓國政治에 적용시켰을 때 나타난 問題點인 政治와 社會를 분리하고 社會에 대한 고찰을 제외시켜 政治의 개념을 협소화함으로써 政治的인 것의 全體社會的인 조건과 歷史的인 연관을 등한시해버린 것에 대한 解決方法은 韓國政治에 관한 全體社會的인 分析이다.

全體社會的인 政治分析은 무엇보다도 政治秩序란 ‘전체사회적 질서의 통합적인 구성요소’라는 命題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全體社會的인 政治分析은 政治를 社會와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社會構造, 經濟構造, 教育과 이데올로기 등으로 이루어지는 全體社會의 構造 및 條件들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한 構造 및 條件들이 權力의 기초를 이루고 政治的인 것의 原因을 이룰 뿐만 아니라 거꾸로 權力과 政治的인 것의 작용이 構造 및 條件들의 變경을 가져온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는 경제적 결정론이나 정치적 결정론과 같은 決定論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배제된다⁵²⁾. 이 경우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全體社會的인 政治分析은 政治的인 것 뿐만 아니라 全體社會的인 構造와 條件들을 역사적인 형성물로 본다는 점이다. 각 社會마다 그것이 발전되어온 역사적인 과정이 달라짐에 따라 그 社會의 全體的인 構造 및 條件들이 다르게 되고, 그에 따라 政治權力의 기초뿐만 아니라 정치현상의 인과관계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社會의 身分構造, 階層構造, 職業構造, 集團構造, 勢力構造, 經濟構造, 意識構造, 權力構造 등과 같은 社會의 部分構造들은 모두 상호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다른 部分構造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全體社會的인 政治分析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全體社會의 構造속에 存在하는 정치적 지배조건들을 문제시하게 되는 것이다⁵³⁾.

최근 韓國의 政治學界에서는 現實問題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회피해오던 자세를 지양하고 現代韓國의 政治問題 또는 産業化의 課題와 직접 대결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 세대의 학자들이 社會活動에 대거 참여하고 이들이 국가이론, 네오 마르크스주의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시민사회론 등 비판적 社會科學모형을 韓國學界에 도입하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금껏 正統理論에서 경시해 오던 社會經濟的인 관점과 歷史性을 중시하고 韓國의 社會現實과 직접 대결하려는 점에서 ‘政治學의 韓國化運動’에 매우 귀중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50) 문승익, 앞의 글, pp. 11 - 12.

51) 윤근식, 앞의 글, p. 111.

52) 이태일, 앞의 글, p. 425

53) 위의 글, p. 426.

IV. 結論：韓國政治學 研究의 課題

韓國政治學의 研究課題는 韓國社會의 總體的인 解明에 주어진다. 韓國社會의 총체적인 해명 이란 추상적인 성격뿐만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모습까지도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물과 현상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基本矛盾과의 關係를 통해서만 그 본래의 모습을 올바르게 드러내기 때문에 基本矛盾을 해명하는 것은 가장 선차적인 課題이다. 따라서 基本矛盾을 해명함으로써 구체적인 현상들을 해명하고 구체적인 현상들을 해명함으로써 基本矛盾을 드러내는 작업이 동시에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韓國의 政治學 研究가 보다 깊이 있게 규명해야 할 과제로는 첫째, 分斷의 政治·經濟學의 性格을 해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分斷의 形成과 高착과정은 民族問題와 階級問題에 대한 이질적인 解決方式이 동일한 民族의 政治的·經濟的·社會的 생활공간에서 이질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적대적인 關係를 갖는 복수의 政權이 공존하고 이의 政治·經濟的 性格이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分斷이 民族의 總체적인 모순점이라 볼 때 이는 반드시 民族全體의 이름으로 극복되어야 할 부정적인 구조인 것이다. 국제적인 냉전에 의해 民族이 分斷된 채 政治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으로 冷戰構造에 의해 이루어진 기본적인 틀이 아직까지도 韓國社會를 지속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방이후 韓國의 政治를 근본적으로 틀지웠던 國際的인 冷戰構造와 民族分斷 상황의 본질에 대한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政治權力의 기초와 권력의 전체적인 작용에 대한 규명이다. 政治權力은 언제나 서로 연관된 政治적·사회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구조 즉, 全體社會的 構造위에서 형성되고 또 權力의 작용은 全體社會的 構造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權力의 권위구조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해명은 全體社會속에서 찾고있는 權力의 기초와 全體社會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權力의 작용을 구체적으로 分析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셋째, 政治學의 認識方法論을 다원화시키고 다양한 方法論적인 공존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行態主義 政治學이 과학성이라는 이름하에 價値를 배제함으로써 人間에 대한 철학적 인식과 사회에 대한 역사의를 결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현실이 인간의 삶과 역사에 바탕하고 정치학이 이러한 사회현실에 대하여 정치학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한, 철학적 인식과 역사의식은 정치학의 문제틀내로 수용되어야 한다.⁵⁴⁾

넷째, 韓國의 政治學을 내용면에서 더 한층 풍요한 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韓國 政治學에 있어서 논의의 확대와 질적 심화를 위하여 이데올로기問題, 엘리트問題, 階級構造, 社會變動 등의 問題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課題의 解決을 통해서만이 韓國의 政治學이 학문적으로 普遍性을 가진 特殊性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韓國政治學을 주변부적 위치로부터 중심부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이다.

54) 정해구, 「한국 사회현실과 한국정치학」, 학술단체연합심포지움 편, 『80년대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서울: 역사비평사, 1988), pp. 106-107.

參 考 文 獻

- 1) 구범모, 「비교정치학 20년의 反省」, 『한국정치학회보』, 제2집, 1967.
- 2) 김계수, 「한국정치학의 현황과 문제점」, 『제1회 한국정치학회.재북미한국인 정치학자회 합동학술 대 회논문집』, 1975.
- 3) 김광웅,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 : 박영사, 1978.
- 4) 김성주, 「정치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사회과학의 동향과 전망』, 서울 : 한울, 1994.
- 5) 김영국,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학의 발전」, 『한국정치학회보』, 제11집.
- 6) 김홍우, 「정치행태론비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현대사회과학방법론』, 서울 : 민음사, 1977.
- 7) 문승익, 「한국정치학의 정립문제」, 『한국정치학회보』, 제13집, 1979.
- 8) 심현섭, 「비판적 실증주의」,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현대사회과학방법론』, 서울 : 민음사, 1977.
- 9) 안청시, 「한국정치학의 발전과제와 방향모색」,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론』, 서울 : 법문사, 1986.
- 10) 오명호, 『현대정치학방법론』, 서울 : 박영사, 1995.11) 윤근식, 「사회없는 정치학과 한국정치학」, 성균 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사회과학론』, 서울 : 대왕사, 1983.
- 12) 윤근식, 『정치학』, 서울 : 대왕사, 1975.
- 13) 이범준, 신승권, 『정치학』, 서울 : 박영사, 1986.
- 14) 이태일, 「한국정치연구의 반성과 과제」, 『오늘의 책』, 서울 : 한길사, 1984.
- 15) 전경갑, 『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 서울 : 한길사, 1993.
- 16) 정인홍, 「한국정치학의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제5집, 1971.
- 17) 정해구, 「한국 사회현실과 한국정치학」, 학술단체연합심포지움 편, 『80년대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현 단계와 전망』, 서울 : 역사비평사, 1988.
- 18) 진덕규, 「한국의 정치학을 위하여」, 『한국사회연구 1』, 서울 : 한길사, 1983.
- 19)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현대사회과학방법론』, 서울 : 민음사, 1977.
- 20) 한배호, 『정치학방법론』, 서울 : 법문사, 1983.
- 21) 황성모, 「사회과학의 토착화에 대하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현대사회과학방법론』, 서울 : 민음 사, 1977.
- 22) Ted Benton, 안상헌 역, 『사회과학의 철학적 기초』(서울 : 풀빛, 1984), p.53.
- 23) Abbagnano, N, *Positivism : in Encyclopedia of Philisophy*, 1972, Vol.6.
- 24) Benton, Ted,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the Three Sociologies*,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1977.
- 25) Easton, David, "The Current Meaning of Behavioralism," in James C. Charlesworth(ed.), *Contemporary Political Analysis*, New York : The Free Press, 1967.
- 26) Easton, David, "The New Revolution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December, 1969.
- 27) Halfpenny, Peter, *Positivism and Sociology : Explaining Social Life*, London : George Allen and Unwin, 1982.
- 28) Husserl, Edmund, *Ideas : General Introduction to Pure Phenomenology*, trans. W.R.Boyce Gibson, New York : The Macmillan Company, 1952.
- 29) Isaak, Alan C., *Scope and Methods of Political Science*, Homewood, Illinois : The Dorsey Press, 1981.
- 30) Munitz, Milton K., *Contemporary Analytic Philosophy*,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81.
- 31) Truman, David, "The Implications of Political Behavior Research," *Item*, December, 1951.

